

규장각 소장 고문서 자료의 현황과 활용

양진석*

-
- | | |
|-----------------|---------------|
| 1. 머리말 | 3. 고문서의 활용 |
| 2. 고문서 현황 | 1) 학문적 가치 |
| 1) 고문서 소장경위와 현황 | 2) 고문서 자료의 정리 |
| 2) 고문서 발간 | 3) 고문서의 전시 |
| 3) 고문서 정리와 보존 | 4. 맺음말 |
-

1. 머리말

규장각은 대략 5만 건이 넘는 방대한 양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 소장 고문서의 특징은 양적인 측면도 있으나, 내용면에서도 다른 고문서 소장기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왕실문서와 관부문서가 다수 있으며, 사인문서 중에서도 토지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양의 문서를 지니고 있다.

이들 고문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주고받은 원자료로서 실록이나 비변사 등록과 같이 정리된 사료와 비교해보면 보다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고문서 작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진했고 한국학 연구자들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라 할지라도 한문을 해독하는 것만으로는 고문서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초서로 작성된 고문서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으며, 한국식 한자 혹은 이두식 표현을 알지 못하여 내용에 접근하지 못한다든지, 고문서의 투식을 알지 못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근래 고문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래 여러 기관들이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못하여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설사 공개된 자료라 하더라도 원문을 해독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

* 필자 : 규장각 학예연구사

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공개된 자료들도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가능한 한 많은 연구자들이 고문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장각은 그러한 점에서 이용자들이 원본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발간함으로써 그러한 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방대한 고문서를 정리하고 활자화하여 발간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문서를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문서 발간은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되었다. 원문 탈초가 이미 7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지만, 원고에 대한 검토 작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원문의 탈초 또한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는 탈초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고문서를 분류하여 활자화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고문서 발간의 최종적인 목적이 활용에 있다면, 그것을 보존하고 정리하고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이는 고문서를 보존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대책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연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고문서장 및 관련 시설, 훼손된 문서에 대한 보수책, 목록의 정리 및 전자 미디어를 이용한 자료공개 등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규장각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왔지만, 그 중에서 고문서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진행된 것과 미비한 점들을 지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¹⁾

2. 고문서 현황

1) 고문서 소장경위와 현황

규장각 고문서를 소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일제하에 규장각에 근무하던 일본인들이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고문서를 수집할 계획을 세우고,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을 포함한 전국적인 규모로 고문서를 수집하고 있었으나, 해방을 맞

1) 이 글은 2002년 규장각 학술대회 “규장각 자료의 보존과 활용”이란 주제 하에 발표되었던 것을 새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글이 발표되지 않아, 근래 필자는 규장각 고문서정리의 현황을 정리하고 글로 발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일부 내용을 추가한 후 다시 정리하였다.

게 됨으로써 일제하의 고문서 수집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한국의 수많은 고문서들이 그 과정에서 서울대(당시 경성제국대학)로 모이게 되었으나,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것도 적지 않다.³⁾ 그와 같은 문서들 가운데는 위조된 것도 적지 않지만, 수많은 문서들이 수집과정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이 계획적으로 고문서를 수집하여 반출하였다는 점도 있으나, 그 배경에는 고문서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크게 결여되었다는 점이 작용한 사실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개인 혹은 집안을 중심으로 고문서를 보존하는 노력도 지속되어 왔다. 현재 남아 있는 고문서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대부분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주된 주체로는 유명가문 혹은 서원, 향교 등과 같은 기관들을 들 수 있다. 근래에는 대학, 혹은 연구소, 기관 등을 중심으로 다량의 고문서들이 수집되어 정리되고 있으며,⁴⁾ 게다가 자기역사의 발굴과 새로운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연관된 역사자료들을 수집하거나, 혹은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나아가 연구소 혹은 박물관을 건립하여 홍보작업을 겸한 고문서 수집들이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⁵⁾

이에 비해 규장각은 해방이후 고문서 수집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와 같은 사정에는 우선 관심의 부족도 있었으나 먼저 고문서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장각은 서울대도서관에 속해 있는 기관이어서 도서관과 분리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독자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은 인원확충의 문제였다. 고문서를 다룰 수 있는 인원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고문서를 정리할 인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고문서를 구입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1970년대 후반에 고문서 탈초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고문서의 발간은 1984년 서울대 국사학과 최승희 교수가 규장각 관리실장직을 맡게 되면서 가능하게 된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기존에 탈초된 고문서들을 다시 정리하고, 한편으로

-
- 2) 규장각 소장 고문서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주는 기록은 없다. 다만 규장각이 서울대 도서관에 소속되었을 때, 근무했던 분들의 구전을 통해 들은 정도이다. 규장각에 근무하던 유요훈 규장각 前관리실장의 구술에 의하면 규장각 고문서는 대개 일제 특히 1930년대 이후 수집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 3) 일본에 반출되어 대학에 소장된 고문서들은 최승희 교수에 의해 정리되어 묶여져 영인본과 탈초본으로 나누어 간행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日本所在韓國古文書》(한국사료총서 제46, 上·下, 2002)).
 - 4) 예를 들면, 한국토지공사 소속의 토지박물관은 기관의 특성과 유관한 토지문서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정리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수집된 문서는 25,000건에 이르고 있다. 그 중 70-80%가 토지문기를 포함한 분재기류이다.
 - 5) 원주시는 원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지방자료의 수집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원주시는 2004년 李泰遠가의 고문서를 정리하여 《原州韓山李氏家古書·古文書》(원주시립박물관 총서1)를 간행하였다.

기존원고의 대교작업과 함께 일부 탈초작업을 진행하면서 《고문서》 간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규장각 고문서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고문서 대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문서 대장은 고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마땅히 고문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규장각에 있는 고문서 대장은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문서의 종류를 기입하는 정도로,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고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규장각에서 소장한 고문서의 현황을 그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은 규장각 문서함에 비치된 고문서카드 덕분이다. 이들 고문서카드는 고문서를 탈초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고문서의 종류 및 구체적인 서지사항 등을 살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카드화한 것이어서, 고문서의 전반적인 소장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문서 소장 현황은 1986년 《고문서》 1집(國王文書, 王室文書)을 간행하면서 서문에 해당하는 「서울大學校圖書館所藏 古文書에 대하여」에 정리된 것에서 대장을 살필 수 있다. 國王文書, 王室文書, 官府文書, 私人文書, 結社文書, 奉神佛文書, 外交文書로 나뉘어 개별적인 고문서의 소장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국왕문서는 綸音(1), 玉冊(8), 箋文(4), 教書(39), 諭書(31), 有旨(76), 教旨(1,073), 祿牌(94), 批答(28), 下膳狀(28), 封書(4), 會盟錄(1), 致祭文(19), 詠文(1) 등 모두 1,407건이며, 왕실문서는 箋文(4), 手本·啓目(49), 圖署牌旨(4), 傳旨(4), 徽旨(1), 令書(2), 祭文(1), 其他(1) 등 모두 66건, 관부문서는 冊寶文(1), 箋文(21), 上書(16), 筭子(4), 啓本(377), 草記(1), 狀啓(24), 書啓(3), 諡號望單子 등 單子類(19), 關(95), 牒呈(663), 帖(368), 書目(496), 解由文書(25), 手本(55), 甘結(99), 傳令(359), 尺文(59), 文狀(23), 告目(67), 稟告(3), 朝報(82), 祿標(12), 勿禁帖(8), 馬帖(7), 草料(4), 行狀(1), 古風(1), 行下(4), 單子(20), 防僞私通(7), 通諭(4), 望記(6), 完文(73), 空名帖(2), 立案(270), 立旨(5), 題音·題辭(38), 膳給(16), 照訖帖(22), 帖文(9), 甲午以後 新式文書(177) 등 3,548건이며, 사인문서는 上疏(1), 上言(23), 試券(91), 所志(4,413), 等狀(202), 單子(202), 原情(22), 上書(183), 議送(131), 俵音(225), 戶口單子(1,344), 立後成文(12), 和會文記(70), 分給文記(54), 衿給文記(90), 別給文記(123), 許與文記(142), 遺書(12), 土地文記(30,437), 牌旨(2,339), 山圖(34), 柴場文記(55), 水砧文記(6), 家屋文記(536), 奴婢文記(396), 漁場文記(3), 鹽盆文記(5), 船隻文記(7), 貢人文記(226), 其人文記(15), 京主人文記(34), 旅閣·船·倉·商賈主人文記(62), 導掌文記(33), 典當文記(205), 手票·手記·不忘記(719), 贖良文記(4), 自賣文記(54), 完議·立議(13), 書狀(658), 婚書(7) 등 43,188건이며, 결사문서는 通文(163), 回文(16), 下帖(9), 驗標(2) 등 190건이며, 봉신불문서는 祭文(22), 哀詞(6) 등 28건이며, 외교문서는 表·箋·奏本

類(97), 咨文(119), 勅(1), 誥命(2), 國書(4), 照會(7) 등 230건이다. 총 48,467건이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도 다수 있어서 현재 50,690건에 이르고 있다.

이 조사 결과가 현 시점에서는 규장각이 소장한 모든 문서들을 망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후 구입, 혹은 기증된 문서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문서 건수로 볼 때, 규장각 도서 246,000여 건 중에서 1/5에 해당하며, 단일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로서도 최고의 수준이다.

규장각에는 낱장의 고문서 외에도 원형의 고문서를 살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고문서를 단순히 합철하여 책으로 만든 것으로서, 2만 여건의 고문서로 이루어진 庄土文績, 토지소유 및 부세관련 도서, 고종 및 순종 때에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도서들이 그것이다. 이들 책들은 개별 고문서의 원형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다만 단순히 책의 형태로 묶인 것에 불과하다. 만일 이들을 개별 고문서로 파악하게 된다면 관리대장에 등록된 고문서와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그 양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현재 규장각이 대장에 등록하여 파악하고 있는 5만여 건의 고문서는 그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합철된 것들을 모두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낱장의 고문서 혹은 다수의 고문서들을 하나로 묶어서 책으로 작성된 것들이 규장각에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본 것이다. 규장각에서 실질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양적으로도 방대하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면에서도 중요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규장각이 많은 종류의 고문서를 확보하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최고의 고문서를 소장한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새로운 고문서를 발굴, 정리하고 활용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인적, 재정적 지원도 함께 요구된다.

2) 고문서 발간

규장각은 고문서 대장에 등록된 것을 중심으로 고문서를 편집, 발간하고 있다. 발간된 책은 1986년 《古文書》 1집이 간행된 후 1년에 1권씩 간행되다가, 근래 2권씩 발간되어 《고문서》 29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규장각은 국왕문서, 왕실문서, 관부문서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미 간행하였고, 근년에는 사인문서에 해당하는 소지류를 비롯하여 매매문서들을 간행하고 있다. 앞으로 사인문서 중 토지문기 및 노비문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을 정리하여 간행할 예정이며, 결사문서, 봉신불문서, 외교문서 등의 순서로 이어질 것이다. 이들 문서들을 간행하는 순서는 앞서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소장 현황의 차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문서의 차례를 바꿔서 간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히 편집상의 편의에 따른 것이다.

각 문서의 편집 순서는 대체로 종류에 따라 작성시기, 작성주체 혹은 대상자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서가 작성된 시기가 명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거나, 혹은 문서의 종류에 따라 발급자 혹은 수취자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다. 때문에 고문서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문서에 따라 편집순서가 달라진 것은 고문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적용방식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교지는 국왕이 발급하는 것이 상식이므로 굳이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는 문서이다. 수취자를 중심으로 편집하는 것이 고문서를 열람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지는 우선 수취자를 기준으로 삼고 연도별로 배열한 다음, 다시 각 인물별 문서작성 시기에 따라 세분하여 편집하고 있다.

소지나 등장과 같은 소지류들은 다양한 내용으로 발급자와 수취자가 매우 다양하다. 수취자만 하더라도 관청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때로는 어사 혹은 국왕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발급자인 개인 혹은 다수의 사람들(집안과 관련된 자, 마을 구성원, 이해를 같이하는 자도 모두 포함된다)이 동일한 내용을 앞에 언급한 각 기관들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지류를 내용별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발급자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열람자들에게 내용과악과 누가 소지를 제출하였는가를 파악하게 하는 데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고문서 편집에는 문서의 작성연대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 것도 있다. 이는 발급자와 수취자를 일괄하여 묶는다 하더라도 문서 간에 연관성을 지니지 않는 고문서가 대부분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작성연대가 확실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연대미상인 문서는 뒤로 편집하였다. 첩정이나 서목과 같은 예를 보면, 발급자와 수취자가 사안에 따라 다양하여 일정하기 않기 때문에 작성연대를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작성된 지역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편집원칙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고문서의 특성만 알고 있다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며, 발급자 혹은 수취자 내지 작성연대만을 편집기준으로 삼아 일관성만을 고집하였을 때, 이용자들은 편집된 고문서를 모두 읽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다. 때문에 문서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목차만 보더라도 문서들을 가능한 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한편 고문서 간행에 많은 요소들을 감안하여 열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 하고 있지만, 편집실무자 선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고문서 간행에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마다 간행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고문서를 고르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간할 대상의 목록과 함께 간략한 서지사항을 작성하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

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고문서를 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편집인 1인과 교정을 맡은 편집원 2인인 현재의 인원으로는 미리 작업대상을 선정하고 간행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문서대장과 문서를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던 ‘목록카드’ 및 문서를 탈초한 원고들이 고문서 선적작업 및 시간절약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들을 정리하는 것 또한 많은 시간을 요구함은 물론이다. 이는 그만큼 고문서 발간을 위한 선적작업들이 손이 많이 가고 비효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발간을 위해서는 고문서 대장을 비치하는 것 외에도 고문서 전체에 대한 목록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고문서 활자화가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규장각 소장 고문서를 완간하는 데 수십 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발간작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때, 일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문서를 정리 발간하는 작업은 단순 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고문서를 해독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간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업 가능한 인력의 육성과 아울러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고문서 작업은 한문해독 능력뿐만 아니라 초서 및 이두, 한국식 한자 등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여 단순히 한국학을 전공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때로는 인력확보를 위한 교육 혹은 다른 형태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⁶⁾

3) 고문서 정리와 보존

(1) 고문서목록집의 필요성

고문서의 정리와 보존은 단순히 고문서의 보관 상태만을 일컫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고문서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보수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규장각 고문서는 정리와 보존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장각소장 고문서정리사업은 외부로부터의 연구비 지원이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인 기록의 부재로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지만, 하버드 옌칭연구소(哈佛燕京學社)의 연구비보조로 1964년도부터 연구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⁷⁾ 그 과정에서 實錄索引, 地誌의 해제

6) 2005년 9월부터 교내 대학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1년을 기한으로 초서강좌를 개설하여, 고문서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좌도 지속적인 후원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제시해야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아가 양성된 인력을 규장각이 흡수하여 활용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교육을 통한 인력확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 동아문화연구소, 《韓國地方志綜觀》(서울대학교출판부, 1974)

및 색인 등에 대한 작업과 함께 규장각소장 고문서카드화작업도 이루어졌음을 들 수 있다.⁸⁾

그 과정에서 규장각소장 고문서를 이용하여 그나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관계 고문헌과 고문서를 중심으로 간단한 해제를 붙여 만든 것으로 동아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韓國近世對外關係文獻備要》와 《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을 들 수 있다.⁹⁾ 그러나 이 책들은 관련분야의 것 중 일부를 간단한 해제를 붙여 설명하였으나, 규장각소장 고문서 목록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이들 작업은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고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격적인 고문서목록작업은 196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승희 서울대 명예교수에 의하면, 1963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東亞文化研究所에서 규장각도서와 관련된 작업을 추진하게 되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사업 시작 후 2년이 지나면서 규장각 고문서목록의 카드화작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동시기에 하버드 엔칭연구소의 지원을 받게 되어 동아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규장각고문서를 목록화하기 위한 카드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작업에는 처음부터 연구책임자인 金鍾堉교수를 비롯하여, 崔承熙(國史學專攻), 金鍾元(東洋史學專攻), 田光鉉(국문학과), 孔在錫(中國語·文學專攻) 등이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규장각소장 고문서목록을 카드화하였다.¹⁰⁾ 이후 李謙周, 金鍾心 등이 작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가담하였다. 그러나 규장각소장 고문서 카드화작업은 연구비지원의 중단으로 40,000건 정도를 정리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규장각은 종합도서목록이라는 도서중심의 종합목록을 갖추고 있으며, 그에는 일부 고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규장각이 소장한 고문서만을 일별할 수 있는 목록집은 하버드 엔칭의 연구비를 제공으로 이루어진 카드작업이 추진된 이후에는 전혀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를 탈초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고문서카드가 새로 작성되어 규장각에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최승희 교수가 규장각관리실장으로 부임하면서 고문서 발간작업이

8)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설 동아문화연구소에는 현재도 이때 이루어진 작업결과물인 카드가 작업별로 분류 소장되어 있다.

9) 全海宗 《韓國近世對外關係文獻備要》(奎章閣圖書研究叢書1, 1966)

韓洵 《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奎章閣圖書研究叢書2, 1966)

이후 규장각 소장도서 중에서 앞서의 작업에서 누락된 것을 모아 간행한 《舊韓末古文書解題目錄》(한국도서관협회, 1970)이 있다.

10) 동아문화연구소, 《東亞文化》1(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동아문화연구소, 1963)에서 연구소 소개를 보면, 이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규장각이 2003년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비를 받아 토지문기를 정리하기 위해 우선 선배들의 작업을 참고하기 위해, 동아문화연구소에 비치된 토지문서카드를 조사·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명패가 목록함 깊숙이 보관된 것을 찾아내어, 보조연구원 중에서 당시 규장각 고문서 카드작성과 관련된 주된 역할을 최승희가 맡았음을 살필 수 있었다.

활기를 띠게 되었고, 한편으로 탈초 및 교열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락된 카드를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이로써 규장각 전체 고문서를 대상으로 카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후속작업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서 현재 규장각에 비치된 고문서카드를 목록함 별로 구분하여 비치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규장각 고문서를 이용하는 데 따른 결정적인 문제점은 대장과 목록카드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작성된 개별 고문서들 모두 모아 소개를 한 목록집이 없다는 점이다. 즉 규장각에는 다양한 고문서를 종합·정리한 목록집이 없다.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카드화된 목록이 있지만, 규장각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규장각이 소장한 개별문서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마저도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셈이다.

이와 같이 고문서목록집의 부재는 연구자들이 고문서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고문서의 발간사업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연구자 및 규장각의 입장에서 고문서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고문서 관련 종합목록이다.

고문서 종합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목록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려 한다. 목록작업에 필요한 요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古文書 臺帳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문서 대장은 고문서의 번호 및 고문서 종류만 표기되어 기본적인 사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탈초된 원 고매수가 기입된 정도이다. 이 대장을 통해서 규장각이 어떠한 종류의 고문서를 어느 정도 소장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항만 알 수 있는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고문서 대장은 규장각의 서류철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고문서 번호 및 고문서 종류만 표기되어 있으며, 게다가 유별화되어 있지 않아서 담당자도 실물을 보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규장각 내부에서 고문서를 점검하기 위한 장부로 이용하고 있는 이 대장을 기초로 삼아서, 보다 종합적인 문서의 소장상황 및 조사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문서에 대한 총괄적인 調査作業이 필요하다. 고문서 대장의 정리와 함께 규장각 소장 고문서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반도서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가운데는 상당수의 고문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정확한 목록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고문서 綜合目錄을 작성하는 데 따른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지원이 필요하다. 규장각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의 종합목록이 없다. 고문서 이용자들은 소장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기존에 간행된 《古文書》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간행된 문서 외에 새로운 문서는 전혀 열람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고문서 총목록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곧 가칭 《규장각소장고문서종합목

목록집》을 작성하는 것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목록집의 電算化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03년 9월부터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규장각소장 토지문기의 정리 및 목록집 간행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 김인걸 교수)라는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규장각에서 소장한 고문서중 가장 양이 많은 토지문서 대략 35,000건 중 20,000건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규장각이 소장한 토지문서의 목록집은 전산화를 예상하여 자세한 서지사항과 내용 해제를 포함하는 항목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연구과제로 토지문서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규장각소장고문서의 종합목록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綜合索引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고문서 중에는 개별문서만으로도 훌륭한 자료적 가치를 가진 것도 있으나, 개별문서로서보다는 다른 문서와 연관하여 이용될 때 활용도가 높은 문서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서들이 개별화되어 있어서, 문서간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다.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필요한 문서를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연관된 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색인을 통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전산화사업에서 이러한 점을 포괄해줄 수 있다면, 색인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고문서에서 같은 내용을 달리 표기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할 때, 문서간의 연계 및 활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고문서 관리

① 고문서의 낱장 보관 및 관리 방식

고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은 각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 공간의 문제, 보관함의 문제, 개별 고문서를 어떻게 분류하여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기관에 따라 고문서를 보관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보관함을 따로 마련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고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주변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으로, 해당 기관에서 얼마만큼 고문서에 대한 배려를 하였는가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규장각은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 문제만 하더라도 고문서가 규장각 도서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보관함을 새로 교체하여 나온 환경을 제공하는 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보관하는 방식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연접된 문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문서를 낱장씩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고문서를 넣은 개별 봉투를 번호순에 따

라 새로이 마련된 고문서장에 보관하고 있어서, 이전의 보관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오래된 고문서장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고문서의 간격을 넉넉하게 주어 문서봉투들이 밀착되지 않게 한 점이 다를 뿐이다.

문제는 고문서를 보관하는 함의 크기와 고문서를 담은 봉투의 규격과 재질이다. 우선 봉투의 규격 문제이다. 고문서를 제대로 보관하는 최상의 방법은 문서를 있는 그대로 펴서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문서가 낱장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양의 고문서를 편 상태로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규장각에서도 다른 도서를 보관하는 공간과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고문서를 낱장으로 보관하였을 때,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고문서의 크기를 조사하여 적절한 크기의 틀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고문서가 너무 커서 접거나 혹은 말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가령 34m에 이르는 조보와 같은 것은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서 보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봉투 크기보다 커서 접어야만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접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 두 번만 접어도 접히는 것이 만나는 접점에서 그 훼손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종이가 두꺼운 것일수록 손상될 가능성은 더욱 크다. 현재 고문서를 꺼내서 이용하는 빈도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보관 방식은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은 고문서를 담은 봉투의 재질 문제이다. 이들 봉투는 오래 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당시에는 종이의 성질까지 고려하여 제작된 것은 아니었다. 현재 규장각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서류봉투로서 고문서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봉투와 규격과 재질면에서 동일하다. 다만 문서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혹은 두꺼운 장지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주문 제작하여 봉투의 규격이 다른 것에 비해 유난히 큰 것들도 있다. 이들 봉투들이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문서를 보관하는 봉투들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즉 중성지의 도입을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 고문서를 봉투에 넣어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서와 봉투 양자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문서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가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처리 전문가들은 중성지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문서가 지닌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가능하다면 보존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문서를 담은 고문서장의 문제이다. 고문서장은 현재의 봉투를 담을 수 있는 크기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고문서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여 표준적인 규격을 제시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보다 긴 안목에서 현재의 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면, 이

전의 보관함의 규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차원만 고려된 것이기 때문이다. 보관함들을 배치할 공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의 문서 보관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함께, 고문서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라는 점도 찾아져야 할 것이다.

② 일괄문서 및 연관문서에 대한 관리

규장각 자료는 고문서로 편철된 것이 많다. 이런 자료의 경우는 고문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관련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고문서는 낱장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여러 장의 고문서가 모여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말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같은 지역 혹은 같은 집안의 문서라고 할 때, 그와 관련한 정보들을 문서대장에 기입하여 두었을 때, 이후 고문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문서 취득시 그것을 취득하는 시기 및 취득처를 밝혀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규장각에 있는 고문서들은 취득한 시기와 취득처가 불분명한 것이 많다. 구체적인 취득경로를 밝혀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된 고문서를 찾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규장각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에 신경을 쓰지 못함으로써, 문서들을 일괄하여 모아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결과적으로 놓치고 말았다. 다만 유사한 번호 혹은 인접된 번호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일괄문서 혹은 상호 연관된 문서들이 많아서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정도이다.

한편 연관문서는 일괄문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규장각은 이와 같은 문서들을 연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번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연관된 문서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문서들이 연결되어 연계된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외의 것들도 고문서 탈초 혹은 발간 작업과정에서 연관문서들을 찾게 되면 카드에 기입하는 정도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연관문서를 찾아내는 일은 힘든 작업이다.

그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 가능성은 있다. 그것이 고문서의 전산화 작업이다. 규장각 고문서를 전산화를 할 경우 연관된 문서들 중 거의 대부분을 찾아 낼 수 있다. 물론 전산화 작업이라 하더라도 한 지방 혹은 한 집안의 일괄문서 내지 연관문서를 모두 찾아낼 수는 없다. 그 중에서도 일괄문서는 그 지방 혹은 집안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면 찾아낼 수 없다.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일괄된 문서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표시가 없다면 문서들끼리 연관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인명의 표기가 다르거나 혹은 해당 지방의 명칭 혹은 한 집안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면 놓치기 쉬운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작업과정에서 연관될 수 있

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인위적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게 되면, 분산된 것들을 그나마 최대한 모을 수 있다. 따라서 전산화 작업은 규장각의 고문서목록을 정리하는 방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③ 열람자료의 대체

규장각 소장 고문서의 보존은 자료관리와 연관하여 언급되어야 한다. 고문서의 보존은 원본을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하고, 가능한 한 대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규장각은 원 자료의 열람을 최소화하고, 열람자들이 가능한 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문서들을 활자화하여 간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의 형태 및 상태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이미지)을 제공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기존의 방법 중 하나는 자료의 보존을 위해 마이크로 필름화하는 것이다. 규장각 도서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필름화가 되고 있으며 많은 도서들이 마이크로 필름화되었다. 그러나 고문서는 현재 마이크로 필름화된 것이 없다. 문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대형문서가 있어서 마이크로 필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서와 고문서 중에서 마이크로 필름화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을 수도 있다. 현존하는 기술 중 이미지를 가장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이 마이크로 필름이라는 점에서도 이 작업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래 고문서 중 일부에 대해 마이크로 필름화가 아닌 전산 이미지 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보화사업과정에서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부 문서의 디지털 영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원본을 직접 대하지 않고서도 원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작업은 고문서 일부에 한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이후 이미지화 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원본을 직접 만지지 않고서도, 원본의 형태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원본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많은 문서들이 디지털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기존의 기술을 수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전산시스템이 함께 따라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으며, 많은 비용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과 함께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문서의 보존을 위해서는 훼손 혹은 오손된 문서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보수작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서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때 보수작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성급한 보수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문서는 자료보존과 관리라는 측면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고문서는 대부분 유일본이므로, 같은 내용을 지닌 것이 매우 드물다. 서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복본들을 다수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랜 시일이 지나 몇 개 남지 않은 간행본일 경우를 제외하면, 대

체적인 간행본은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장부 혹은 개인 일기, 일록류 등과 아직 간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유일본인 경우를 제외하면, 설령 필사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기존에 간행된 것들을 다시 필사한 것이 많다. 반면 고문서는 대부분 유일본이다. 고문서 중에서도 부분의 형태로 남겨진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한 개의 문서만 작성하였으므로 손실 혹은 심하게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문서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원본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활자화 및 원본의 형태를 최대한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훼손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고문서 자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고문서 자료의 보존과 관리라는 측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문서의 보존과 관리는 단순하게 문서의 안전한 보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문서의 내용을 보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문서의 활자화, 영인간행, 이미지화된 영상물의 형태 등이 있지만, 때로는 이 중 하나의 작업만으로는 문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모자란 점을 채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④ 고문서보관시설 확보

고문서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시설은 이미 다른 도서와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확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고문서 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지만, 그와 관련하여 고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2005년 규장각의 증축과 함께 규장각 서고가 크게 확장됨으로써, 규장각도서의 보존과 관련하여 공간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고문서의 보관과 관련된 시설이 확충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차후 고문서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시설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3. 고문서의 활용

1) 학문적 가치

고문서는 1차로 정리된 일록류, 개인 일기류 등을 각종 사료들을 이용하여 밝히기 어려운 실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살필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고문서가 개별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문

서는 기존에 이미 정리된 형태의 사서들이 지닌 부족한 점을 보충하거나 혹은 기존의 사서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역사적 서술들이 대부분 집권층을 비롯한 편찬자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고문서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옳게 서술되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서술들이 잘못 기술되거나 혹은 오도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¹¹⁾

근래 고문서에 대한 관심이 좀더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학 연구에서 고문서의 비중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를 이용한 연구업적들을 많이 내고 있다. 이는 고문서가 한국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일록류 혹은 일반 역사서를 비롯한 기존의 자료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새로운 모습을 고문서가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고문서가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실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 하겠다.

특히 생활사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문서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의 구체적인 실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문서이기 때문이다. 다른 자료들은 작성자들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인 시각으로 가공됨으로써 원래의 사실이 왜곡되어 기술될 수 있으나, 고문서는 문서 자체로서 구체적인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고문서는 왕실을 비롯한 양반과 일반 평민,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들의 생활을 꾸밈없이 보여줄 수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민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가능하다.

현재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는 토지소유, 노비, 재산상속, 가계연구, 지역사, 물가사 등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연구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고문서는 역사부문에 있어 알게 모르게 모두 이용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문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것들이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儀軌마저도 반차도를 비롯한 圖式 혹은 圖說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왕문서 혹은 왕실문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고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 뿐 국왕, 혹은 왕실에서 고문서로 작성된 것들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들이다.¹²⁾

11) 다산이 경세유표에서 언급한 京主人權의 가격과 동시기 長湍京主人價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崔承熙,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89, 26~29쪽).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실학자들의 언급한 일반적인 기술을 금과옥조처럼 사실로 여기고 있으나, 실제 사실과 대조하였을 때 과장되거나 혹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예와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12) 《園幸乙卯整理儀軌》에 이용된 고문서만 열거해보면, 傳教·筵說·樂章·致詞·御製(致祭文·告由祝文)·御射·傳令·軍令·節目·啓辭·啓目·狀啓·移文·關·手本·甘結 등이 있으며, 《英祖四尊號上號都監儀軌》에는 啓辭·移文·關·甘結·書啓·玉册文·稟目 등이 실려 있다. 이처럼 의례는

따라서 의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문서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물론 다른 분야에 대한 식견도 필요하지만, 고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의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문서를 이용한 연구는 실제 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용되고 있는 문서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 문서들은 대부분 근대 이후의 제반 법제 하에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문서의 기재방식과 고문서에 실린 문서형태를 살펴봄으로써 각 시대마다 문서의 종류 및 틀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고찰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학제간 연구 및 역사분야 내에서도 상호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고문서가 지니는 장점이다. 고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분야를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언어·문자·법제·인류·민속·서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2) 고문서 자료의 정리

고문서는 대체로 草書로 기록된 것들이 많아서 일반인이 해독하기 힘든 점이 많다. 따라서 고문서를 탈초하여 발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문서가 탈초되어 있지만 일부 탈초되지 않은 것도 있다. 새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고문서라든지,¹³⁾ 혹은 해독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그것이다. 현재 해독 가능한 것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이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

한편 고문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필요하다. 서적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세하고 정밀한 해제 혹은 해설이 필요한 반면, 고문서는 간결하면 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용자들에게는 문서에 담긴 주된 내용을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고문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모두 검토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그만큼 고문서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라 하겠다. 따라서 간단한 해설을 목록과 함께 제공할 경우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고문서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의례류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용어만이 아니라, 고문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의식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와 그 의미를 다루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13) 2002년 南原 梁氏 龍城君派 29世孫인 梁慶孫이 기증한 예를 들 수 있다. 이들 고문서는 개성에 거주하던 南原 梁氏 집안에서 소장하던 것으로 197건이며, 서울대 獸醫學圖書館에 근무하고 있는 李始漢 司書의 주선으로 2002년 규장각에 기증되었다. 현재 서지사항을 포함한 목록작업이 진행되어 목록집으로 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인 서지사항은 규장각 고문서편집원 李宰熙가 작성하였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학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고문서 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다. 국내에서 가장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이 이들 자료들을 한국학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은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고문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록과 함께 인명, 지명, 중요단어에 대한 색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문서의 작성자 혹은 발급대상자, 그리고 활동지역, 주요한 내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관련문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산화를 통하여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 전산화가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고문서에 대한 전산화 작업도 시급한 문제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3) 고문서의 전시

고문서에 대해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근래 TV 프로그램, 혹은 전시회를 통해 고문서에 대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지는 관심은 전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매우 높다. 전시회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으나, 일반인들의 관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문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를 비롯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때문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자신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학문적인 것에 집중되는 예가 많지만, 일반인들은 전반적인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다. 그 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고문서이다. 일반인들이 이전에 접해보지 못하던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고문서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만큼 생생하게 우리의 생활을 전달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회화가 직접적인 삶의 모습, 당시의 정경,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보다 생생한 모습들을 제공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못지않게 고문서도 당시의 사람들이 직접 종이에 기록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작성된 당시의 사람들의 삶과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당대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고문서 전시는 대체로 문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문서를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상상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문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그들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바랄 수는 없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는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근래 한자를 모르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이는 곧 한자로 기록된 서적이니 고문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문서의 단순한 해독만이 아니라,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도 추출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고문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질로 제작되었으나, 우리가 접하는 것은 종이재료로 제작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문서들이 그러하다. 현재 규장각에서 소장한 고문서도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문서는 곧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이미 정리된 책자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정리된 책자만을 이용한다는 것은 곧 저자 혹은 편찬자의 의도에 따르거나 혹은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고문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고문서는 역사적 현상을 서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때 보조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는 고문서가 공정한 해석을 가능케하는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문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규장각이 소장한 방대한 양의 고문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원하는 주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자들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원문의 형태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영상의 형태로 원본의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지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할 것이다.

고문서의 내용(텍스트)과 영상(이미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열람자들이 원본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본을 대신하여 영상을 제공하는 것의 의미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고문서에 대한 연구자와 일반인의 관심이 크게 요구된다. 특히 고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나아가 그것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

고문서를 해독하고 정리하는 것은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에 속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고문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전공하려는 사람들이 적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문서를 다룰 수 있는 연구자들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고문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연구비 지원의 결여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고문서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크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작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전시효과가 큰 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우리 문화와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힘든 작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크게 필요하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 및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필요한 사업만 하더라도 몇 년을 요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간행작업 외에도 고문서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포함한 목록 사업은 규장각에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